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만전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 지방정원 · 거점형 대형놀이터 조성사업 · 전주관광 케이블카 사업 대상지 등 현장 점검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 동남부권 체류형 관광거점이 될 전주 지방정원 조성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21일 덕진구 유아동 옛 전주자연생태체험학습원 일원에 들어설 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거점형 대형놀이터 조성사업, 전주관광 케이블카 사업 대상지 등을 둘러봤다.

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32억 원을 투입해 약 10만㎡ 일원에 지방정원과 연면적 1518㎡의 지방정원 가든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우 시장은 먼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1단계 사업으로 완료된 이벤트정원과 작가정원 등을 둘러봤다.

우 시장은 또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2단계 현장과 지방정원을 찾는 관광객을 맞이할 지방정원 가든센터의 건축공사 등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공정관리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21일 전주 동남부권 체류형 관광거점이 될 전주 지방정원 조성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우 시장은 지속가능한 놀이문화 확산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민선8기 공약 사업인 거점형 대형놀이터 조성사업 대상지를 찾았다.

시는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전

주 지방정원에 약 8500㎡의 규모로 거점형 대형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이날 우 시장은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도 안전한 공간, 전주만의 특색을 담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

성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우 시장은 전주관광 케이블카 사업 대상지를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전주관광 케이블카 사업은 약 9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지방정원과 아중호수, 기린봉, 한옥마을을 잇는 총연장 2.4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전주관광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주 지방정원 등 연계사업을 고려한 공모지침서(안)를 마련해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지방정원과 이와 연계된 사업들이 완료되면 한옥마을 일원에 집중된 전주 관광 콘텐츠가 아중호수 일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확인한다”라며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도시 전역을 누빌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이보순 전주시의원 대표 발의 “모든 세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주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마련됐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보순(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가이드라인 수립,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보순 의원은 “노인인구의 지속 증가와 고령화 추세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령화 정책을 수립해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시민들의 치주질환 예방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 대상 무료 스케일링 사업 연중 추진

전주시보건소, 65세 이상 노인 사전 예약제로 진행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시민들의 치주질환 예방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외래 다빈도질환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가장 많은 환자 수와 요양급여비용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의 경우 면역력 저하와 치아 기능 감소로 인해 치주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 예방 및 조기 치료가 필수적이다. 시는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치주질환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적극 추진기로 했다.

사업 대상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자는 검진 후 구강 상태에 따라 스케일링과 불소 도포, 구강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진행

되며, 참여를 원하는 65세 이상 노인 은 전주시보건소(063-281-6321 ~4) 또는 덕진보건소 구강보건센터(063-281-8534 ~6)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치료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65세 노인 353명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과 불소 도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은 전신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국 찾은 싱가포르 국회의장단, 지방도시 중 유일하게 전주 방문

전주 문화 · 역사 청취 · 공식 만찬서 교류방안 논의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찾은 싱가포르 국회의장단이 국내 지방도시 중 유일하게 전주를 공식 방문하면서 전주가 글로벌도시임을 또 한 번 입증했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시아 키엔 핑 국회의장과 루이스 추야 싱가포르 노동자당 국회의원, 응 링 링 싱가포르 인민행동당 국회의원,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 등 주요 싱가포르 고위급이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국회의장단은 서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등을 접견

한 후 국내 지방 도시 중 유일하게 전주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를 찾은 싱가포르 방문단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대학교를 방문하고,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전주의 문화와 역사를 청취했다.

또한 우범기 전주시장이 주재한 공식 만찬에 참석해 남관우 전주시의회의장, 최락기 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을 만나 전주-싱가포르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싱가포르 테마섹폴리테크닉대학과 전주대, 전북대

등 전주시역 대학간 교류 교두보 역할을 통해 대학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주선해 왔으며, 세계 최대 도시정부들의 회의인 싱가포르세계정상회의(WCS) 주최기관 등과 전주미래도시포럼 발원방안 등에 대해 협력해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싱가포르와 전주는 테마섹폴리테크닉과의 협력,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여, 전주미래도시포럼 협력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각 대학간의 교류 교두보 역할 등 다양한 인연을 맺어 왔다”면서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싱가포르의 컨벤션 분야와 영화영상산업 분야의 노

하우, 그리고 글로벌도시로 성장한 경험을 전주시 발전에 접목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글로벌리더들이 사랑하는 도시’를 표방하며, 세계 각국의 오피니언리더를 초청해 이를 글로벌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왔다. 지난해에는 캐나다 퀘벡 출신의 세계적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스티브 바라캇이 전주 방문 후 ‘전주랩소디’를 헌정했으며, 하버드대학생 100명이 전주에서 내한공연을 펼친 후 수익금 전액을 전주시복지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청과물, 여의동 사랑나눔곳간에 과일 기부

전주청과물(대표 지춘식)은 지난 21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주민센터(동장 송해인)에 150만 원 상당의 사랑의 과일을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어려운 이웃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

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부된 딸기 1KG와 포도 2KG 총 100박스는 여의동 사랑나눔곳간과 복지시설을 통해 필요한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춘식 전주청과물(주) 대표는 “정성이 담긴 신선한 과일이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과 활력이 되었으면 한다”라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의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마련된 여의동 사랑나눔곳간은 소규모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누구나 쉽게 기부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이어가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의 역침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